

목 차

○ 제 1 장 유럽연합 아이스크림 시장현황	1
가. 유럽연합 일반현황	3
나. 아이스크림 시장개요	4
다. 생산 및 수출입현황	17
라. 제조업체 및 주요 브랜드	20
마. 시장트렌드 및 전망	29
바. 아시아 아이스크림 진출현황	33
○ 제 2 장 주요 국가별 아이스크림 시장현황	41
가. 이탈리아	43
나. 독일	54
다. 프랑스	63

제 1 장

유럽연합 아이스크림 시장현황

- 가. 유럽연합 일반현황
- 나. 아이스크림 시장개요
- 다. 생산 및 수출입현황
- 라. 제조업체 및 주요 브랜드
- 마. 시장트렌드 및 전망
- 바. 아시아 아이스크림 진출현황

1

유럽연합 아이스크림 시장현황

가. 유럽연합 일반현황

1) 회원국 현황

2017년 8월 기준 정식 회원국: 총 28개국

〈 유럽연합 회원국 및 가입연도 〉

국가명	가입 연도	국가명	가입 연도	국가명	가입 연도	국가명	가입 연도
오스트리아	1995	에스토니아	2004	이탈리아	1952	포르투갈	1986
벨기에	1952	핀란드	1995	라트비아	2004	루마니아	2007
불가리아	2007	프랑스	1952	리투아니아	2004	슬로바키아	2004
크로아티아	2013	독 일	1952	룩셈부르크	1952	슬로베니아	2004
사이프러스	2004	그리스	1981	몰 타	2004	스페인	1986
체 코	2004	헝가리	2004	네덜란드	1952	스웨덴	1995
덴마크	1973	아일랜드	1973	폴란드	2004	영 국	1973

* 출처: 유럽연합

2) 환경적 특성

유럽연합 지역은 고위도에 있기 때문에 저온으로 수목이 생육할 수 없는 한대기후부터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선선하여 비가 많은 대서양성 기후, 그리고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매우 더우면서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까지 각 회원국의 위치와 지형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후적 특성을 나타낸다.

대륙성 기후와 대서양성 기후를 나타내는 국가의 경우, 연간 기온 주기 중 최고 기온이 낮고 일조가 매우 불규칙하다.

나. 유럽연합 아이스크림 시장현황

1) 시장규모

2017년 기준 158억 유로(한화 약 21.2조원)로 2012년 대비 4.97% 증가하였으나, 2016년 대비 1.01% 감소한 수치이다. 최근 이탈리아의 아이스크림 판매 감소가 시장규모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2012년 2017년 사이 각각 14.23%, 12.27%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현재 유럽 아이스크림 시장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별 시장 점유율로는 1위가 이탈리아 23%(359억 유로), 2위 독일 17% (268억 유로), 3위 영국 12%(197억 유로), 4위 프랑스 11%(178억 유로), 5위 스페인 9%(148억 유로)로 집계되었다.

〈 2012~2017년 유럽연합 국가별 아이스크림 매출규모 〉

(단위: 백만 유로, %)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17 증감률	'16/'17 증감률
합계	15,087.5	15,071.7	15,350.6	15,917.3	15,999.2	15,837.2	4.97	-1.01
이탈리아	3,901.5	3,756.7	3,659.7	3,635.6	3,611.8	3,594.5	-7.87	-0.48
독일	2,348.5	2,422.5	2,548.2	2,658.5	2,657.8	2,682.8	14.23	0.94
영국	1,936.6	1,915.8	2,092.9	2,301.0	2,047.8	1,974.0	1.93	-3.60
프랑스	1,591.5	1,622.7	1,640.5	1,751.3	1,741.9	1,786.7	12.27	2.57
스페인	1,369.0	1,319.8	1,342.1	1,399.6	1,437.9	1,478.5	8.00	2.82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17 증감률	'16/'17 증감률
핀란드	415.8	475.8	496.9	506.5	510.2	479.7	15.37	-5.98
폴란드	345.0	366.9	386.6	403.0	402.8	421.8	22.26	4.72
네덜란드	371.8	382.2	398.7	412.0	403.1	416.3	11.97	3.27
포르투갈	336.7	349.8	351.4	363.5	380.7	400.2	18.86	5.12
스웨덴	330.9	360.3	355.5	345.9	346.8	351.3	6.17	1.30
벨기에	298.5	311.2	322.6	331.3	338.8	344.9	15.54	1.80
덴마크	311.5	303.0	310.1	315.8	328.5	339.8	9.09	3.44
오스트리아	226.8	233.4	239.5	241.6	244.0	246.5	8.69	1.02
루마니아	204.6	193.1	179.2	185.7	193.5	204.4	-0.10	5.63
헝가리	166.7	175.0	162.0	170.0	178.7	181.2	8.70	1.40
그리스	250.0	198.6	181.6	177.8	174.6	166.8	-33.28	-4.47
아일랜드	148.7	151.9	156.9	158.7	160.8	163.3	9.82	1.55
체코공화국	138.2	133.7	125.9	137.4	141.8	146.7	6.15	3.46
불가리아	66.1	68.9	71.3	73.3	75.8	79.3	19.97	4.62
크로아티아	66.9	64.3	59.4	66.9	69.1	71.2	6.43	3.04
슬로바키아	59.5	52.8	50.0	57.9	69.1	58.7	-1.34	-15.05
리투아니아	42.6	46.3	49.1	50.0	69.1	56.0	31.46	-18.96
슬로베니아	44.3	46.4	45.3	46.6	69.1	49.0	10.61	-29.09
에스토니아	29.2	30.9	32.1	33.0	69.1	42.7	46.23	-38.21
라트비아	27.5	29.8	31.9	30.9	69.1	34.7	26.18	-49.78
키프로스	23.0	22.7	22.8	23.7	69.1	25.4	10.43	-63.24
룩셈부르크	19.5	20.3	21.2	22.2	69.1	22.9	17.44	-66.86
몰타	16.6	16.9	17.2	17.6	69.1	17.9	7.83	-74.10

* 출처: Euromonitor

6 해외이슈조사보고서 유럽연합

2) 유통현황

2017년 기준 유럽연합국 내 아이스크림의 95%가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편의점, 할인마트, 주유소 판매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현대식 식품판매점이 54%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대식 식품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 판매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특히 북부 유럽으로 갈수록 이 경향은 두드러지며 남부로 갈수록 전통 식품판매점 및 기타 식품판매점에서의 아이스크림 판매 비율이 높다.

특히 유럽 아이스크림 제 1 시장인 이탈리아는 현대식 식품 판매점에서의 아이스크림 판매가 약 17%로 유럽 국가 내 제일 낮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기타 식품 전문점, 즉 젤라또 전문점에서의 아이스크림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이탈리아의 아이스크림 시장규모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경제침체 이후 소비자들이 카페나 바 등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방문하는 빈도수 자체가 감소하여 아이스크림 매출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 아이스크림 유통채널별 판매 점유율(2017) 〉

구 분		점유율	
점포 판매 (95%)	현대식 식품판매점 (54%)	편의점	7%
		할인마트	16%
		주유소 판매점	4%
		대형마트	21%
		슈퍼마켓	6.5%
	전통 식품판매점 (39%)	식품/음료/담배 전문점	4%
		소형 슈퍼마켓	6.5%
		기타 식품소매점	29%
	혼합 소매점		1%
비점포 판매점 (5%)	홈쇼핑	3.5%	
	인터넷 소매	1.5%	

* 출처: Euromonitor

〈 국가별 유통채널별 판매 점유율(2017) 〉

구 분	현대식 식품 판매점	전통 식품 판매점	기타 식품 판매점
슬로바키아	96.42%	2.90%	0.00%
핀란드	96.22%	2.82%	0.08%
네덜란드	94.45%	3.78%	1.77%
라트비아	92.73%	7.27%	0.00%
체코 공화국	91.41%	8.25%	0.35%

구 분	현대식 식품 판매점	전통 식품 판매점	기타 식품 판매점
폴란드	87.62%	11.44%	0.94%
헝가리	82.10%	13.21%	3.84%
리투아니아	80.56%	11.63%	7.31%
슬로베니아	80.16%	12.22%	4.41%
오스트리아	78.20%	11.45%	6.41%
벨기에	77.51%	13.77%	8.62%
아일랜드	77.07%	18.45%	3.70%
프랑스	76.55%	13.33%	9.42%
에스토니아	74.83%	21.12%	4.04%
크로아티아	71.33%	19.52%	4.85%
스웨덴	69.89%	15.07%	14.49%
영국	68.96%	20.77%	10.19%
스페인	67.86%	22.92%	9.22%
독일	65.59%	24.09%	10.32%
덴마크	64.73%	19.91%	15.24%
루마니아	45.15%	47.60%	7.26%
포르투갈	42.41%	30.67%	26.75%
그리스	32.76%	37.43%	29.81%
이탈리아	16.81%	42.29%	40.90%

* 출처: Euromonitor

〈 독일 슈퍼마켓 내 아이스크림 코너 〉



〈 프랑스 대형마트(Carrefour) 아이스크림 코너 〉



아이스크림 코너



Ben & Jerry 진열대



Magnum 진열대



대용량 가정용 아이스크림 진열대

〈 프랑스 슈퍼마켓(Intermarche) 아이스크림 코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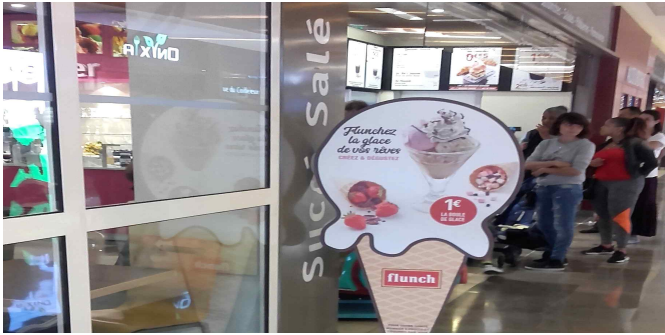
〈 프랑스 쇼핑몰 내 아이스크림 전문점 입점 형태 〉



초콜릿 전문점(Jeff de Bruges) 아이스크림 코너 전경



하겐다즈 매장



Flunch 매장

〈 이탈리아 대형마트(Essenlunga) 아이스크림 코너 〉



계산대 옆 간이 진열대



가정용 아이스크림 진열대



멀티팩 아이스크림 진열대



멀티팩 아이스크림 진열대

< 이탈리아 젤라토 전문점 Gelato Giusto >



3) 소비규모

연간 1인당 아이스크림 소비량은 2017년 5.4 kg으로 2012년 4.9kg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핀란드(13%), 리투아니아(24%), 에스토니아(28%), 라트비아(16%) 등 발트해 연안 국가와 폴란드(24%), 헝가리(13%) 등 동유럽 국가의 소비량이 2012년 대비 큰 폭 증가했다.

핀란드와 독일의 경우 각각 소비량이 10.7kg, 9.5kg으로 이는 세계 아이스크림 소비량의 다섯 배가 넘는 수치이다.

〈 유럽연합 국가별 1인당 아이스크림 소비량 〉

(단위: kg, %)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17 증감률
핀란드	9.5	10.3	10.4	10.5	10.5	10.7	13
독일	9.1	9.1	9.3	9.6	9.5	9.5	4
이탈리아	9.1	8.7	8.3	8.3	8.3	8.4	-8
영국	8.1	8.2	8.2	7.9	7.9	7.9	-2
스페인	6.7	6.6	6.8	7.0	7.3	7.5	12
포르투갈	6.6	6.7	6.7	6.9	7.1	7.3	11
스웨덴	7.0	7.3	7.4	7.4	7.4	7.3	4
덴마크	6.6	6.6	6.7	6.7	6.7	6.8	3
네덜란드	6.2	6.3	6.5	6.6	6.6	6.6	6
오스트리아	7.0	6.9	6.8	6.7	6.5	6.4	-9
몰타	6.1	6.1	6.1	6.2	6.2	6.2	2
벨기에	5.6	5.6	5.7	5.7	5.7	5.7	2
리투아니아	4.5	4.6	4.9	5.1	5.3	5.6	24
아일랜드	5.4	5.4	5.5	5.4	5.4	5.4	0
크로아티아	4.9	4.9	4.4	5.0	5.1	5.3	8
에스토니아	3.9	4.0	4.0	4.1	4.6	5.0	28
룩셈부르크	4.8	4.8	4.9	4.9	4.9	4.9	2
프랑스	4.8	4.7	4.7	4.9	4.7	4.7	-2
라트비아	3.8	3.9	4.0	4.0	4.2	4.4	16
슬로베니아	3.6	3.7	3.6	3.6	3.7	3.7	3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17 증감률
헝가리	3.1	3.3	3.1	3.3	3.4	3.5	13
체코공화국	3.4	3.3	3.3	3.4	3.4	3.4	0
폴란드	2.5	2.6	2.7	2.8	2.9	3.1	24
키프로스	2.4	2.4	2.4	2.4	2.4	2.4	0
그리스	4.1	3.4	3.1	2.8	2.6	2.4	-41
슬로바키아	2.1	2.0	2.0	2.2	2.2	2.2	5
루마니아	1.6	1.5	1.4	1.5	1.6	1.7	6
불가리아	1.0	1.0	1.0	1.0	1.1	1.1	10

* 출처: Euromonitor

4) 소비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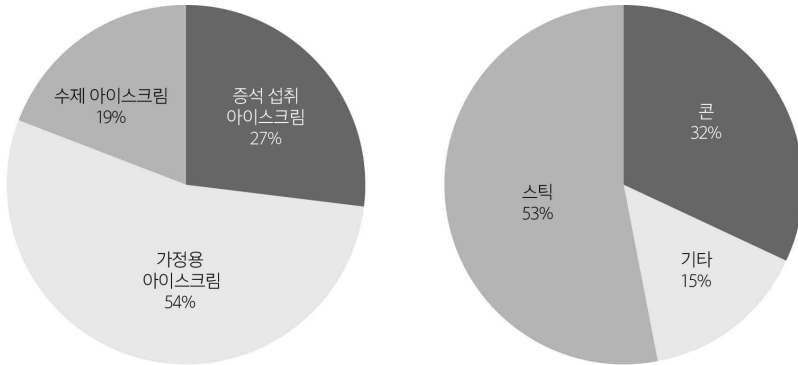
2017년 기준 유럽 연합 내 판매되는 54%의 아이스크림이 가정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아이스크림의 경우(유제품 함유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포함) 대용량 아이스크림, 멀티팩 등으로 판매되는데 2012년 대비 8.84% 증가하였다. 특히 멀티팩 유제품 아이스크림의 판매가 14.28% 증가했다.

구매 즉시 섭취하는 아이스크림 형태의 경우 스틱 형태의 아이스크림이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콘 형태가 3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가정용 아이스크림의 소비가 높은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포장된 아이스크림의 판매가 상대적으로 저조하

고 수제 아이스크림의 소비가 높다.

〈 아이스크림 종류 및 형태별 시장 점유율(2017) 〉



아이스크림 종류에 따른 시장 점유율 아이스크림 형태에 따른 시장 점유율

* 출처: Euromonitor

5) 선호하는 맛

유럽인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바닐라이며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루마니아 같은 남부유럽 국가는 초콜릿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맛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세 가지는 바닐라, 초콜릿, 딸기이며 국가에 따라 레몬, 견과류, 베리류, 요거트 등 시장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종류의 맛을 선호한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지중해 연안국의 경우 기본적인 초콜릿, 바닐라, 딸기와 같은 클래식한 맛과 더불어

오렌지/메론, 망고, 혼합과일, 바나나, 레몬과 같은 과일 맛의 아이스크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경우 감초 맛 아이스크림이 5위에 올랐는데 이는 감초 디저트(사탕, 젤리 등) 소비를 많이 이루어지는 핀란드 시장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 유럽 상위 10개국 선호 아이스크림 맛 〉

국가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이탈리아	초콜릿	넛트	바닐라	레몬	딸기	스틱나나
독일	바닐라	초콜릿	딸기	스트라 치아텔라	베리류	요거트
영국	바닐라	초콜릿	딸기	초콜릿칩	토피	이국적 과일
프랑스	바닐라	초콜릿	딸기	베리류	커피	럼 & 레이즌
스페인	초콜릿	바닐라	딸기	요거트	크림	레몬
핀란드	바닐라	초콜릿	딸기	토피	감초	블루베리
폴란드	크림	바닐라	딸기	초콜릿	넛트	체리
네덜란드	바닐라	딸기	초콜릿	크림	카라멜	아몬드
포르투갈	바닐라	초콜릿	딸기	오렌지/ 메론	망고	혼합과일
스웨덴	바닐라	초콜릿	둘체데레체	아몬드/ 넛트	딸기	블루베리

* 출처: Euromonitor

다. 생산 및 수출입현황

1) 생산현황

2016년 기준 아이스크림 생산량은 총 30억 841만 리터, 생산액은 총 55억 5,589만 유로를 기록했다.

〈 유럽연합 아이스크림 생산 상위 10개국 생산현황 〉

(단위 : 톤, 백만 유로, %)

국가	2012		2016		'12/'16 생산량 증감률	'12/'16 생산액 증감률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이탈리아	469,508	1,251	595,092	1,373	27	10
프랑스	439,783	926	453,515	973	3	5
스페인	308,867	646	300,925	667	-3	3
독일	581,070	654	514,972	608	-11	-7
영국	423,158	728	257,694	459	-39	-37
벨기에	161,316	272	199,127	333	23	22
폴란드	197,169	255	263,603	309	34	21
네덜란드	80,261	127	101,524	197	26	54
그리스	33,007	126	37,309	123	13	-2
핀란드	34,025	101	36,140	93	6	-8

* 출처: Eurostat, Prodcom Code: 10521000 Ice cream and other edible ice

2) 수출입현황

2016년 기준 아이스크림 수출액 23.7억 유로, 수입액 20억 유로이었으며,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로 2016년 기준 각각 4억 유로, 3.9억 유로를 수출했다.

〈 유럽연합 아이스크림 수출입현황 〉

(단위: 천 유로)

국가	2012			2016			'12/'16 무역수지 증감률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합계	1,809,223	1,748,214	61,009	2,306,615	1,995,902	310,713	409%
벨기에	232,651	90,614	142,037	350,588	153,405	197,182	39%
프랑스	339,479	220,665	118,815	397,697	206,049	191,648	61%
독일	317,043	217,987	99,056	401,443	292,339	109,105	10%
이탈리아	229,965	131,384	98,581	223,493	123,678	99,815	1%
헝가리	82,927	35,448	47,479	95,228	36,417	58,810	24%
폴란드	63,346	26,661	36,685	96,305	39,988	56,317	54%
네덜란드	142,566	139,694	2,872	208,174	157,283	50,891	1672%
슬로베니아	16,187	13,291	2,895	37,659	12,065	25,594	784%
리투아니아	15,848	9,919	5,929	30,125	12,444	17,681	198%
그리스	14,339	34,472	-20,133	33,129	31,161	1,968	-110%

* 출처: Eurostat, Prodcod Code: 10521000 Ice cream and other edible ice

라. 제조업체 및 주요 브랜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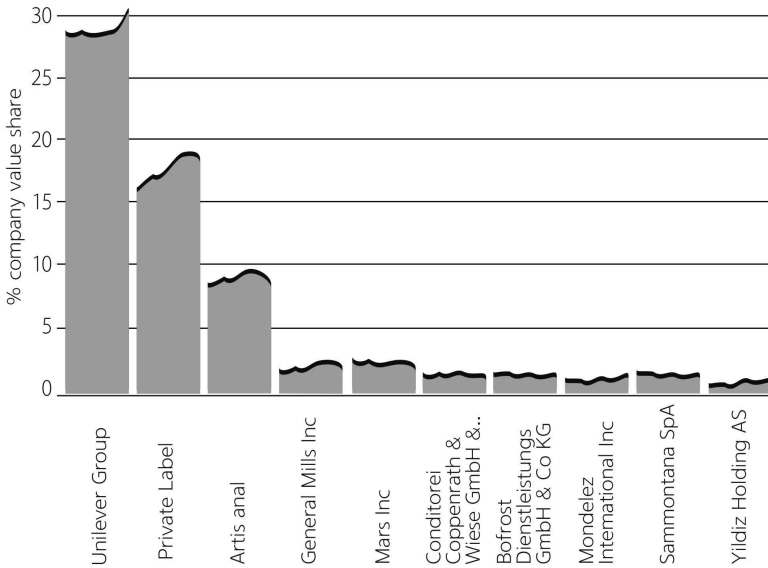
1) 제조업체 현황

수제 아이스크림 소비 비율이 높은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유럽의 아이스크림 시장은 다국적 기업의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럽 아이스크림 시장 80% 이상의 아이스크림이 상위 5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Unilever가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덴마크와 같은 국가에서는 여타 PB브랜드의 부상으로 개별 대형업체의 브랜드 제품 판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PB브랜드 점유율이 2016년 기준 33%로 2007년에 비해 10% 증가했다. 스페인의 유통체인인 Mercadona의 PB브랜드 아이스크림 Hacendado가 매그넘 다음으로 스페인 내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유럽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별 점유율〉



* 출처: Euromonitor

2) 주요 업체정보

■ Unilever (유니레버)

업체명	Unilever	대표자	Paul Polman
홈페이지	www.unilever.com		
본사	Unilever House, 100 Victoria Embankment, London, EC4Y 0DY, UK		
설립일	1929년	종업원수	171,000 명
매출액	\$ 58,313,900,000		
전화	+ 44 20 7822 5252	FAX	+44 20 7822 5251
보유브랜드	Cornetto, Magnum, Carte d'Or, Ben & Jerry's		

* 출처: Marketline

■ Mars Inc. (마스)

업 체 명	Mars Inc.	대 표 자	John Mars
홈페이지	www.mars.com		
본 사	6885 Elm Street, Mclean, VA 22101-6031, USA		
설 립 일	1929년	종업원수	39,000 명
매 출 액	\$ 35,000,000,000		
전 화	1 703 821 4900	FAX	1 703 448 9678
보유브랜드	Snickers, Mars, Bounty, Twix,		

* 출처: Markeline, Bloomberg

■ Nestlé SA (네슬레)

업 체 명	Nestlé SA	대 표 자	Paul Bulcke
홈페이지	www.nestle.com		
본 사	Avenue Nestlé 55, 1800 Vevey, Waadt, Switzerland		
설 립 일	1866년	종업원수	335,000 명
매 출 액	\$ 90,814,100,000		
전 화	+41 21 924 1111	FAX	+41 21 924 4800
보유브랜드	Mövenpick, Extrême		

* 출처: Markeline, Bloomberg

3) 주요 브랜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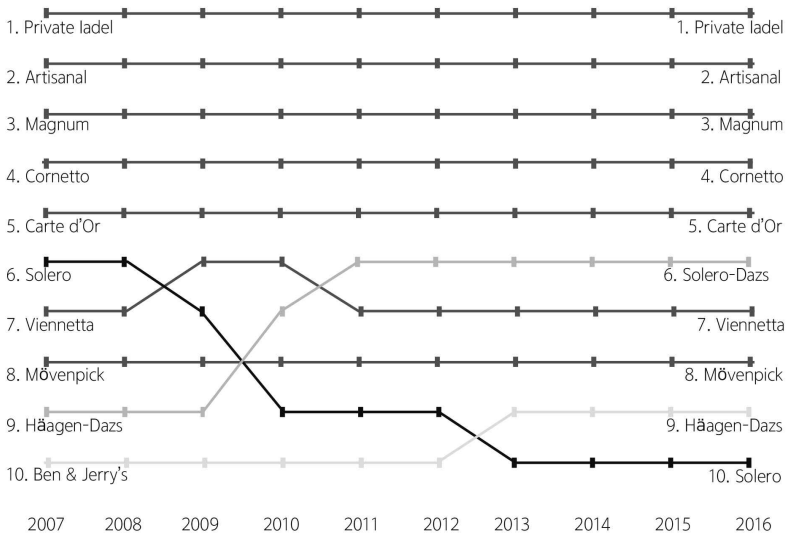
브랜드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는 자사 상표 브랜드(PB)로 가정용 아이스크림 구매가 많은 유럽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구매 편의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PB브랜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자리를

잡았는데 초콜릿 코팅 스틱 브랜드 Magnum, 콘 아이스 브랜드 Cornetto, 대용량 아이스크림 Carte d' Or, 과일맛 스틱 아이스크림 Solero 등이 있다.

2007년과 2016년 사이 시장에서 급부상한 브랜드는 Häagen-Dazs로 2010년 Nestlé의 Mövenpick과 Unilever의 Solero를 제치고 2011년 Viennetta를 앞지르면서 현재 6위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Häagen-Dazs가 내세우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1인용 떠먹는 아이스크림,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맛으로 편의점과 유통체인을 중심으로 영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유럽 아이스크림 주요 브랜드 순위〉



* 출처: Euromonitor





4) 주요 브랜드 정보




회사	제품 이미지	브랜드	종류	형태	특징
Unilever Group		Ben & Jerry's	용기	아이스크림	유제품을 베이스로 브라우니, 쿠키도우, 치즈케익 등 다양한 재료 첨가
		Calippo	스틱	셔벗	우리나라 해태의 '폴라포'와 비슷한 형태의 빙과
		Carte d'Or	용기	아이스크림 및 셔벗	가정용 대용량 아이스크림의 대명사로 다양한 맛 보유
		Cremissimo	용기	아이스크림	독일이권에서 인기가 많은 가정용 아이스크림 브랜드
		Magnum	스틱	아이스크림	초콜릿 코팅 아이스크림의 대명사

회사	제품 이미지	브랜드	종류	형태	특징
Unilever Group		Solero	스틱	셔벗	베리, 이국적 과일 맛 등 과일 베이스 빙과류.
		Swedish Glace	용기	아이스크림	유제품이 첨가되지 않은 채식, 락토스 프리, 글루텐 프리 아이스크림 브랜드
		Viennetta	기타	아이스크림	기존의 떠먹는 아이스크림이 아닌 썰어 먹어 나눠먹는 아이스크림
		Cornetto	콘	아이스크림	콘 형태의 아이스크림
Mondelez International Inc		Green & Black's	용기	아이스크림	유기농 아이스크림 브랜드

회사	제품 이미지	브랜드	종류	형태	특징
Nestlé		Mövenpick	용기	아이스크림	스위스에서 시작된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독일어권에서 인기.
		Extrême	콘	아이스크림	콘 형태 아이스크림
		Cool & Slim	스틱	아이스크림	초콜릿 코팅된 바닐라 스틱 아이스크림으로 무가당이 특징
General Mills Inc.		Häagen-Dazs	용기	아이스크림	대중화된 고급 아이스크림의 대명사, 유제품 베이스로 바닐라부터 과일 맛까지 다양한 종류.
Mercadona		Hacendado	용기	아이스크림	스페인 유통 체인 Mercadona의 PB 상품으로 스페인 2위 브랜드

5) 주요 제품정보

판매국가	제품 이미지	제품명	브랜드명	형태	특징
프랑스		Extrême Mini caramel & Vanille	Extrême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의 경우 한국 보다 더 달고 크림이함. 기존 제품 크기의 반으로 부담 없음.
		Oasis Sorbet Citron-Orange	Oasis	셔벗 /스틱	음료 브랜드인 오아시스에서 출시한 아이스바로 한국의 것보다 더 입자가 작음.
		Häagen-Dazs Strawberry Cheesecake	Häagen- Dazs	아이스크림 /용기	녹는 형태가 부드럽고 진하며 치즈케익이 많이 들어있어 식감이 좋음.
		Sneakers Ice Cream	Sneakers	아이스크림/ 기타	초콜릿바 스니커즈를 아이스크림화 한 제품으로 부드럽고 스니커즈처럼 땅콩 식감이 좋음.

판매국가	제품 이미지	제품명	브랜드명	형태	특징
프랑스		Magnum Classic	Magnum	아이스크림 / 스틱	클래식한 초콜릿 코팅 아이스크림으로 한국 아이스크림보다 달고 진함.
		Glace au melon	Picard	셔벗 / 용기	한국의 메론 아이스크림과 색이 다르며 셔벗 형태로 메론 고유의 향을 느낄 수 있음.
		Soberto Mango	Demeter	셔벗 / 용기	다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망고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유기농 아이스크림.

마. 시장트렌드 및 전망

1) 프리프롬(Free From) 아이스크림의 강세

식품업계 전반적인 트렌드인 건강식, 즉 저당, 저지방, 대체 유제품, 프리프롬 등의 아이스크림 제품이 유럽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프로즌 요거트와 젤라또로 대변되는 수제 아이스크림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2010년 영국에서 출시한 프로즌 요거트 전문 브랜드 Yoomoo는 대용량의 가정용 프로즌 요거트뿐만 아니라 스틱 형태의 프로즌 요거트도 생산해 저지방, 무색소, 무방부제의 건강한 식품으로 홍보했다.

또한 2013년 Unilever에 인수된 스웨덴에서 시작한 두유 아이스크림 브랜드 Swedish Glace의 경우 현재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체 유제품 아이스크림이 인기가 있다고 빙과류가 인기를 얻는 것은 아니다. 독일 이외의 국가에서는 빙과류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빙과류가 설탕덩어리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 영국 프로즌 요거트 제품 〉

브랜드	제품 이미지	제품명	형태	특징
Yoomoo		Vanilla Frozen Yoghurt	용기	글루텐프리, 저지방, 무색소, 무방부제의 바닐라 맛 프로즌 요거트
		Frozen Yogurt Lollies	스틱	프로즌 요거트 베이스의 스틱. 베리, 열대과일, 딸기 맛의 제품 라인

1) 맛, 즐거움, 건강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아이스크림

건강에 좋은 아이스크림 트렌드는 대체 유제품 및 저지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저당, 고급 원료 사용 및 기능성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2013년 런칭한 영국의 아이스크림 브랜드 Oppo는 방목 젖소에서 얻은 우유를 베이스로 스테비아, 코코넛오일을 넣어 한 스푼에 37칼로리밖에 안되는 아이스크림을 선보였다. 일반 아이스크림의

절반 수준 칼로리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Oppo는 현재 Waitrose, Ocado, Whole Foods Market 등 영국 전역에 납품 중이다.

2015년 네덜란드에서 런칭된 아이스크림 브랜드 Koupe¹⁾은 기존 아이스크림의 1/4의 설탕을 함유하여 저당, 고단백질 아이스크림으로 현재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16년 World Dairy Innovation Awards에서 상을 받음으로써 해외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현재 영국의 온라인 식품 판매사이트 Ocado에 납품을 하고 있다.

〈 건강 아이스크림 제품 〉

브랜드	제품 이미지	제품명	형태	특징
Oppo		Oppo Ice Cream Salted Caramel Flavour	용기	기존의 설탕 대신 스테비아 추출 당을 사용하여 칼로리를 대폭 줄인 아이스크림.
Koupe		Koupe Chocolate Protein Ice Cream	용기	설탕 함량이 적어 칼로리가 낮으며 고단백질 및 고섬유질 아이스크림.

1) FoodBev, Koupe Gets UK Listing World Dairy Innovation Awards Scoop
<http://www.foodbev.com/news/koupe-gets-uk-listing-world-dairy-innovation-awards-scoop/>

3) 가정용 아이스크림의 성장

유럽 각국에서 건강적 측면의 이유로 젤라또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가정용 아이스크림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현대적 유통매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다.

Istituto del gelato italiano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젊은 층들은 기본적으로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소비가 많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테이크홈 아이스크림 문화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4) 남부 유럽의 아이스크림 시장확대 전망

유로모니터의 자료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시장 성장은 국가의 일인당 GDP 성장과 비례하므로 소득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아이스크림 시장확대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남부 유럽의 그리스, 포르투갈 같은 국가의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스페인이 향후 유럽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바. 아시아 아이스크림 진출현황

1) 진출여건

유럽의회와 유럽 이사회가 2004년 정한 위생규칙 규정(REGULATION (EC) No 853/2004)에 따라 유제품이 사용된 아이스크림은 원유를 가공하거나 이미 가공된 제품을 다시 가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가공 제품’으로 분류된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럽연합 국가 이외의 국가를 제 3국가로 명명, 유럽연합의 식품법, 검역규정 등에 부합하는 제 3국가에 대해서만 육류 및 유제품 수출 허가하고 있다.(제 3국가 수출국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또한 승인이 필요함)

2017년 11월 기준 한국은 유럽연합 국가로 대부분의 농수산물 수출 가능하나 육류·육가공 및 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출국가로 허가되지 않아 유제품이 사용된 한국의 아이스크림은 유럽연합 국가 대상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 유럽 내 아시아 아이스크림의 현 주소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바닐라, 초콜릿, 딸기, 베리, 요거트, 크림 등 전통적인 맛 아이스크림 제품이 일반 매장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팥, 녹차, 검은깨 등 아시아적인 맛의 아이스크림을 시중에서 쉽게 찾을 없는 것이 현실이며, 콘, 용기, 스틱 형태 이외의 아시아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형태 (모나카, 모찌, 쭈쭈바 등) 제품은 찾기 힘들다.

아시아에서 수입되거나 아시아 스타일의 아이스크림은 주로 아시아 식품 전문점이나 아시아 식당, 아시아 디저트 전문점 등에서만 찾을 수 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식당에서 아시아식 아이스크림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아이스크림이 유럽 소비자에게 친숙한 디저트이기에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발달, 특히 인스타,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보편화로 최근 아시아 아이스크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제품과 비슷한 상품보다는 맛, 형태, 섭취방법 등 유럽과는 차별화된 아시아적인 상품이 주목 받을 수 있다.

〈 프랑스 아시아 식료품 점내 아이스크림 판매대 〉



Tang Frè res 아이스크림 코너



K-Mart 아이스크림 코너

3) 유럽에서 판매되는 아시아 제품

■ 아시아의 맛을 입힌 아이스크림

온라인 식품전문매거진 Food Navigator²⁾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들은 아시아에서 영감을 받은 맛의 아이스크림에 관심을 보이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국적인 맛을 원하고 있다.

이탈리아 소비자의 20%, 폴란드 소비자의 17%, 프랑스 소비자의 16%는 와사비, 녹차, 샤프론 등의 이국적인 맛의 아이스크림을 시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Taywell은 2012년 연 초 일식 체인인 Feng Sushi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영국 내 아시아 식당에 납품하기 위해 아시아적인 맛의 아이스크림과 셔벗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판단(Pandan) 잎 바닐라 아이스크림, 레몬그라스, 칠리 아이스크림, 일본 마차 아이스크림, 카피르 라임 잎 아이스크림, 태국차 셔벗, 유자 등 이국적인 맛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고 있다.

프랑스의 아시아 아이스크림 및 디저트 전문 업체인 Exoglace는 주로 외식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 유자, 두리안, 리치 등의 아시아 과일 및 녹차, 팥, 사케 맛 등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선보이고 있다.

일반 유통매장에 납품되는 아시안 아이스크림으로는 영국의 아이스크림 브랜드 Yee Kwan이 있다. 글루텐프리, 저지방, 이국적 맛을 내세우는 브랜드로 유자, 마차, 리찌, 두리안, 팥 등 동아시아의 맛을

2) Food Navigator, Asia Scoops Ice Crea; Growth Boost As West Turns to East for Flavours
<http://www.foodnavigator.com/Market-Trends/Asia-scoops-ice-cream-growth-boost-as-west-turns-to-East-for-flavours>

재현한다. 현재 영국 일식체인인 Wagamama, 온라인 마켓인 Ocado, 유통체인 Whole Foods에 납품 중이다.

■ 아시아에서 건너온 색다른 모양의 아이스크림

우리나라의 붕어빵, 찹쌀떡과 같이 빵이나 떡으로 아이스크림을 감싼 제품은 큰 형태의 제품 외에는 유럽 시장 내에서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붕어빵은 일본식 이름인 모나카, 찹쌀떡의 경우 모찌로 알려져 있다.

영국 아이스크림 브랜드 Little Moons는 모찌 아이스크림 전문 업체로 코코넛, 라즈베리, 바닐라, 녹차, 참깨, 망고 맛 모찌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고 있다. 2015년 Whole Foods Market, 2016년 온라인 식품 마켓 오카도에 입점했다.

모찌 아이스크림의 경우 한입 사이즈이기 때문에 설탕, 지방 등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 유럽 내 판매되고 있는 아시아 아이스크림 제품 〉

브랜드	제품 이미지	제품명	형태	특징
Yee Kwan		Durian Ice Cream	용기	과일의 왕인 두리안을 담은 아이스크림.
		Frozen Yogurt Lollies	용기	유자주스가 첨가된 아이스크림으로 레몬/오렌지와 다르지만 친숙하게 다가가는 아이스크림
Nagomi		Nagomi Green Tea Ice Cream	용기	일본에서 수입한 녹차 아이스크림
Little Moons		Little Moons Matcha Green Tea Mochi Ice Cream	모찌	녹차 아이스크림을 찰쌀떡으로 감싼 한입 아이스크림.

4) 유럽에서 판매되는 아시아식 아이스크림 디저트 전문점

■ 태국 아이스롤의 유럽 진출

최근 유럽의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찾기 쉬어진 태국스타일 아이스크림, 아이스롤은 태국으로 여행을 떠난 여행객이 SNS에 아이스롤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비디오를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아이스롤은 차가운 판 위에서 아이스크림을 즉석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는 재미와 롤 형태의 독특한 모양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런던에는 Yumitub, 프랑스에서는 IceRoll, 독일에서는 태국식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인 Flockys에서 태국의 아이스롤을 접할 수 있다.



Yumitub 아이스롤



IceRoll 아이스크림

* 출처: yumitub.com, Kevin Ragonneau

■ 홍콩의 에그와플, 아이스크림을 먹는 새로운 방식

에그와플은 젤라또에 둥근 무늬로 구워진 와플을 얹어서 먹는 홍콩의 길거리 디저트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유럽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판매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홍콩 현지의 에그와플이 컵에 제공이 된다면 유럽 내 에그와플은 감자튀김을 담은 모양의 포장지에 담겨있는 형태이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의 Woopwoop, 쾰른의 Romeo & Julia라에서 판매되고 있다.



독일 Romeo & Julia 에그와플

*출처: Yelp

■ 유럽에서도 맛볼 수 있는 한국의 빙수

한국의 여름을 책임지는 강자 빙수는 유럽 내의 한식당에서 김치찌개나 불고기처럼 메뉴에 항상 있는 품목이 아닌데 이는 빙수를 준비하는데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주로 아시아 디저트 전문 가게를 중심으로 빙수를 만날 수 있는데 이는 빙수문화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이 공유하는 디저트 문화이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의 아시아 디저트 전문점인 Bobajam은 일본 물방울 떡부터 마차 크렘브뤼레, 버블티 등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디저트를 판매하는데 이 중 Bing Su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메론빙수, 팔빙수 등 여러 종류의 빙수를 판매 중이다.

2014년 파리 시내 샤펀레에 문을 연 한국의 P사 파리지점은 현지화된 제빵·제과류와 함께 딸기, 망고, 카페 세 가지 빙수를 판매하고 있다. 팔의 경우 1유로로 추가 주문 할 수 있다.



Bobajam 메론빙수



파리바게트 빙수

*출처: bobajam.co.uk/ K-Phenomen

제 2 장

주요 국가별

아이스크림 시장현황

가. 이탈리아

나. 독일

다. 프랑스

2

주요 국가별 아이스크림 시장현황

가. 이탈리아

1) 시장규모

2017년 기준 35억 유로(약 4.8조원)로 전년대비 0.5% , 2012년 대비 8% 하락하였는데, 이는 이탈리아가 경제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아이스크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아이스크림 품목별 매출규모 〉

(단위: 백만 유로, %)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17 증감률	'16/'17 증감률
전체	3,901.5	3,756.7	3,659.7	3,635.6	3,611.8	3,594.5	-8%	0%
1인용 아이스크림	367.6	323.3	301.8	292.9	288.1	285.6	-22%	-1%
1인용 빙과류	317.9	280.1	261.5	252.3	247.3	244.5	-23%	-1%
비포장 아이스크림	49.7	43.3	40.4	40.6	40.8	41.1	-17%	1%
테이크홈 아이스크림	2,618.7	2,572.6	2,521.2	2,500.0	2,475.0	2,453.7	-6%	-1%
대용량 아이스크림	914.3	859.7	835.4	841.2	847.2	853.7	-7%	1%
아이스크림 디저트	837.2	787.6	765.1	771.2	777.9	784.9	-6%	1%
멀티팩 아이스크림	258.5	240.1	226.2	228.9	232.5	235.7	-9%	1%
대용량 빙과류	80.9	75.2	71.1	68.9	67.9	66.9	-17%	-1%
멀티팩 빙과류	497.8	472.4	467.9	473.3	477.5	482.3	-3%	1%

* 출처: Euromonitor

2) 유통현황

2017년 기준 이탈리아 내 아이스크림의 99%가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71%가 소형 슈퍼마켓이나 기타 식품소매점, 즉 전통 식품 판매점에서 유통되고 있다. 특히 기타 식품소매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의 판매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 매출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의 아이스크림 판매가 편의점, 할인마트, 주유소 판매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현대식 식품판매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다.

〈 아이스크림 유통채널별 매출규모 〉

(단위: 백만 유로, %)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17 증감률	'16/'17 증감률
전체	3,901.5	3,756.7	3,659.7	3,635.6	3,611.8	3,594.5	-8%	0%
■ 점포 판매	3,898.5	3,753.8	3,656.8	3,631.0	3,607.0	3,589.4	-8%	0%
• 현대식 식품판매점	1,140.5	1,057.0	1,018.7	1,015.1	1,016.8	1,020.7	-11%	0%
-편의점	97.7	88.9	84.8	82.8	82.0	81.8	-16%	0%
-할인마트	67.1	66.4	66.2	69.7	70.1	70.5	5%	1%
-주유소, 판매점	6.6	5.9	5.5	5.4	5.4	5.3	-20%	-2%
-대형마트	356.0	320.1	310.1	301.6	302.2	303.5	-15%	0%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17 증감률	'16/'17 증감률
-슈퍼마켓	613.0	575.7	552.1	555.6	557.0	559.6	-9%	0%
• 전통 식품판매점	2,758.0	2,696.8	2,638.1	2,615.8	2,590.2	2,568.7	-7%	-1%
-소형 슈퍼마켓	110.2	96.5	90.0	86.1	85.1	84.6	-23%	-1%
-기타 식품소매점	2,647.8	2,600.3	2,548.1	2,529.7	2,505.1	2,484.1	-6%	-1%
■ 비점포 판매	2.9	2.9	2.9	4.6	4.8	5.1	76%	6%
• 벤딩	2.9	2.9	2.9	2.9	2.9	2.9	0%	0%
• 홈쇼핑	-	-	-	1.7	1.9	2.1	-	11%

* 출처: Euro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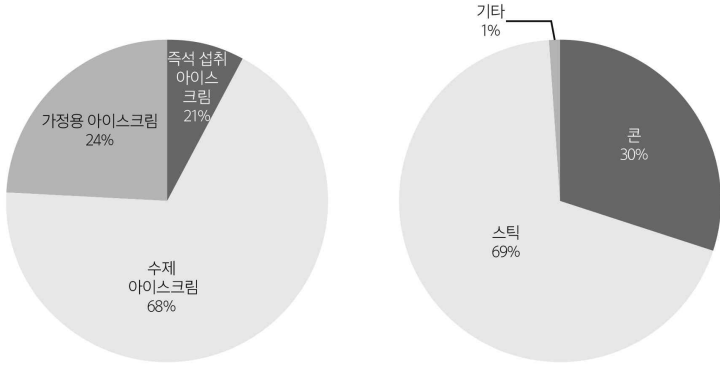
3) 소비동향

2017년 기준 이탈리아의 연간 1인당 아이스크림 소비량은 8.4kg으로 2012년 9.1kg에서 다소 감소했는데 이는 이탈리아 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탈리아인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수제 아이스크림의 비율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용 아이스크림 소비의 비율이 24%, 즉시섭취 아이스크림의 비율이 21%로 2012년도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22%가 감소했다.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빙과류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3% 미만으로 이탈리아 소비자의 빙과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아이스크림 종류 및 형태별 시장점유율(2017) 〉



아이스크림 종류에 따른 시장 점유율

아이스크림 형태에 따른 시장 점유율

* 출처: Euro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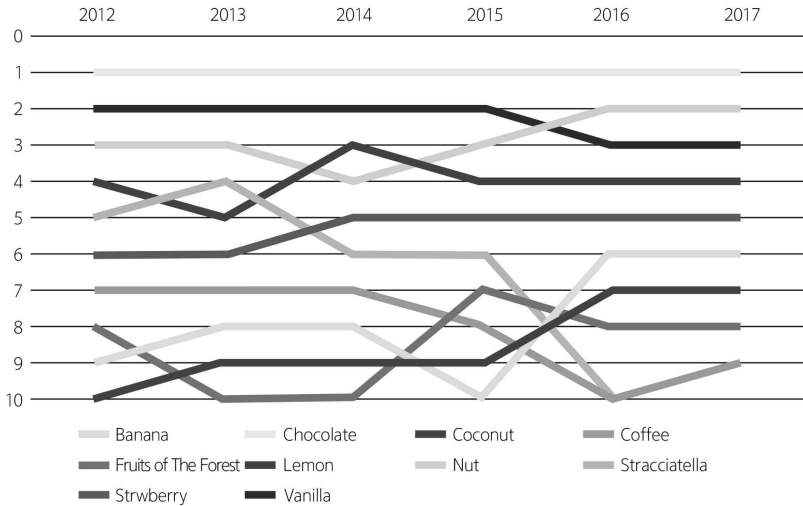
4) 선호하는 맛

이탈리아인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스크림 맛 10가지는 초콜릿, 너트, 바닐라, 레몬, 딸기, 바나나, 코코넛, 산과일류, 커피, 스트라치아텔라이다. 2012년 이후 부동의 1위인 초콜릿을 제외하고 이탈리아 소비자의 선호도는 유동적이다.

이탈리아인의 선호하는 맛의 특징을 보면 크림 베이스의 부드러운 맛의 아이스크림인 초콜릿, 너트, 커피, 스트라치아텔라와 과일 베이스의 레몬, 딸기, 코코넛, 산과일류 아이스크림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이탈리아 소비자들이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섭취하고 좋아함을 알 수 있다.

〈 아이스크림 맛 선호도 변화 〉



* 출처: Euromonitor

5) 생산현황

2016년 기준 이탈리아의 아이스크림 생산량은 총 5억 9,509만 리터, 생산액은 총 1억 373만 유로로 2012년 대비 생산량은 27%, 생산액은 10% 증가했다.

6) 수출입현황

2016년 기준 이탈리아의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2.23억 유로이며, 주로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인근 유럽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 수출액은 174,296 유로 수준에 그쳤다.

〈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수출현황 〉

(단위 : 백만 유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체	254	230	207	223	214	223
독 일	38	39	42	52	45	50
프랑스	71	63	46	48	43	32
영 국	16	12	13	15	18	27
스페인	35	30	26	28	28	26
네덜란드	13	16	11	14	13	15
스위스	6	7	7	7	8	7
오스트리아	6	8	7	7	6	7
폴란드	1	1	1	2	3	6
포르투갈	8	5	7	5	6	6
그리스	9	8	6	7	5	6
기 타	49	41	41	38	38	41

* 출처 : Global Trade Atlas (HS code : 210500)

이탈리아의 아이스크림 총 수입액은 1.23억 유로 규모로 수입국가 또한 독일, 스페인, 프랑스와 같은 주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육류·육가공 및 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출국가로 허가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탈리아 수출실적은 없다.

〈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수입현황 〉

(단위 : 백만 유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체	125	131	121	121	120	124
독 일	33	33	32	29	29	30
스페인	21	22	25	28	26	19
프랑스	19	23	18	16	14	17
네덜란드	15	14	12	12	13	13
벨기에	9	10	9	10	9	12
헝가리	6	6	7	7	8	9
영 국	8	7	6	5	6	6
스웨덴	3	3	3	4	4	5
포르투갈	6	8	4	4	5	4
리투아니아	-	-	-	2	-	2
기 타	3	4	4	4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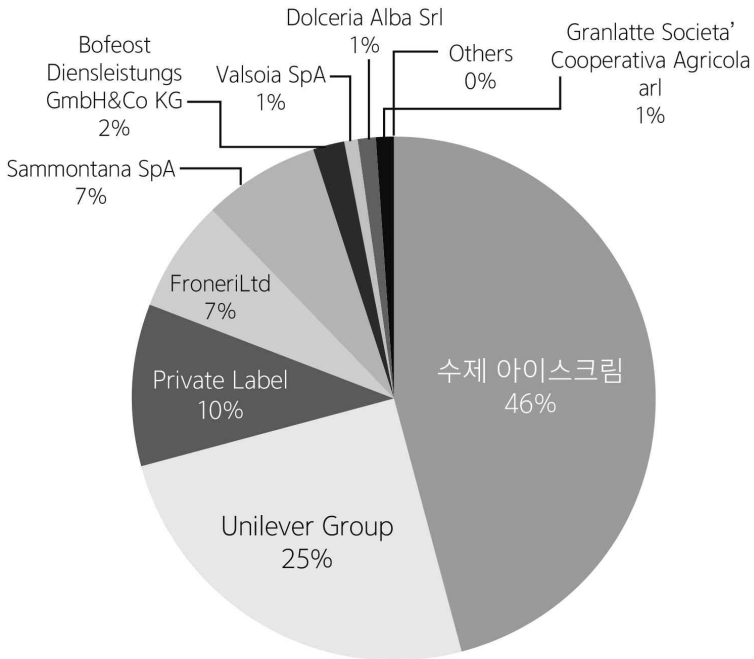
* 출처 : Global Trade Atlas (HS code : 210500)

7) 제조업체 현황

이탈리아는 수제아이스크림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수제 아이스크림 생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46%로 가장 높다.

Magnum, Carte d'Or, Cornette 등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보유한 Unilever 그룹이 25%을 차지했으며, 자사상품 브랜드(PB)의 생산 점유율이 10%, 그 뒤로는 2016년 Nestlé와 R&R 그룹이 공동 런칭한 Froneri가 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 업체별 시장점유율(20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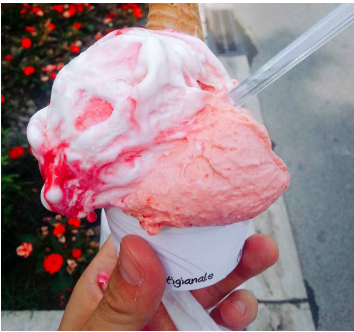


* 출처: Euromonitor

8) 수제 아이스크림 형태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중 가장 많은 판매되는 종류의 아이스크림은 수제 아이스크림 전문점 Gelateria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이다. 젤라또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 수제 아이스크림은 크게 아이스크림을 담은 형태로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다.

크게 컵에 담은 젤라또, 콘 위에 올린 젤라또로 나눌 수 있으며 부드럽고 단 빵인 브리오슈안에 담은 젤라또 형태로도 판매되기도 한다. 이 외에 와플 같은 과자류를 첨가해 판매되기도 한다.



컵 형태의 젤라또



콘 형태의 젤라또



와플을 추가한 컵 형태의 젤라또



브리오슈 안에 담긴 젤라또

9) 시장트렌드³⁾

IGI-Eurisko의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인의 85%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소비자의 94%가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56%의 소비자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대답했다.

소비자의 74%는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도 먹는다고 대답하였으며 이탈리아 소비자들은 오후나 저녁식사 후 아이스크림을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의 1/4은 포장된 아이스크림만을 구매한다고 대답하여 수제아이스크림의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에서도 가정용 아이스크림이나 즉석 섭취 아이스크림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포장 아이스크림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편리함, 다양한 종류, 연중 소비가능, 안전성, 가성비 등의 이유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10) 시장전망⁴⁾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시장 판매 구조 상 수제아이스크림 판매점이나 카페, 바 등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현재 이탈리아의 불경기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 영국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향후 성장률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건강 성분이 가미된 아이스크림 즉 두유 아이스크림,

3) Istituto del gelato, Riti e tendenze del gelato,
<http://www.istitutodelgelato.it/riti-e-tendenze-del-gelato-2/>

4) Ice Cream and Frozen Dessert in Western Europe, Euromonitor

락토프리 아이스크림, 프로즌 요거트 등이 시장에 안착을 하게 되면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독일

1) 시장규모

2017년 기준 독일의 시장규모는 26억 유로(한화 약 3.6조원)로 유럽 시장의 17% 점유하고 있다. 전년대비 0.93%, 2012년 대비 14.23%의 증가률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유럽 아이스크림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 아이스크림 품목별 매출규모 〉

(단위: 백만 유로, %)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17 증감률	'16/'17 증감률
총계	2,348.5	2,422.5	2,548.2	2,658.5	2,657.8	2,682.8	14.23%	0.93%
1인용 아이스크림	405.7	401.2	408.1	431.4	400.4	386.8	-4.66%	-3.52%
1인용 빙과류	303.2	300.2	305.8	323.3	300.9	290.9	-4.06%	-3.44%
비포장 아이스크림	102.5	101.0	102.3	108.0	99.5	95.9	-6.44%	-3.75%
테이크홈 아이스크림	214.4	213.3	218.9	216.1	209.7	207.1	-3.40%	-1.26%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17 증감률	'16/'17 증감률
대용량 아이스크림	1,725.0	1,804.5	1,917.6	2,006.9	2,043.3	2,084.4	20.83%	1.97%
아이스크림 디저트	1,486.2	1,557.3	1,656.8	1,735.4	1,767.3	1,802.0	21.25%	1.93%
멀티팩 아이스크림	694.2	720.9	761.1	804.9	801.6	800.4	15.30%	-0.15%
대용량 빙과류	217.9	234.9	255.4	270.0	278.9	287.7	32.03%	3.06%
멀티팩 빙과류	574.1	601.4	640.4	660.5	686.8	713.9	24.35%	3.80%

* 출처: Euromonitor

2) 유통현황

2017년 기준 독일 내 아이스크림의 89%가 점포에서 판매되는 형태이다. 이 중 편의점(1%), 할인마트(33%), 주유소 판매점(3%), 대형마트(13%), 슈퍼마켓(15%) 등 현대식 식품판매점이 64%를 차지하고 있다.

〈 아이스크림 유통채널별 매출규모 〉

(단위: 백만 유로, %)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17 증감률	'16/'17 증감률
총계	2,348.5	2,422.5	2,548.2	2,658.5	2,657.8	2,682.8	14.23%	0.93%
■ 점포 판매	2,102.6	2,167.7	2,279.3	2,379.1	2,374.4	2,394.7	14%	1%
○ 식품판매점	2,056.0	2,118.9	2,227.5	2,325.4	2,320.1	2,339.7	14%	1%
- 현대식 식품판매점	1,469.1	1,520.4	1,604.4	1,684.8	1,690.4	1,711.3	16%	1%
• 편의점	8.0	9.5	12.1	14.7	16.3	17.7	121%	9%
• 할인마트	750.5	775.7	818.6	859.4	861.8	872.4	16%	1%
• 주유소 판매점	65.0	66.2	68.5	71.8	70.6	70.2	8%	-1%
• 대형마트	305.0	315.1	331.8	349.2	351.2	355.6	17%	1%
• 슈퍼마켓	340.6	353.9	373.4	389.7	390.5	395.4	16%	1%
- 전통 식품판매점	586.8	598.4	623.1	640.6	629.7	628.4	7%	0%
• 식품/음료/ 담배 전문점	190.3	196.8	206.6	215.4	214.4	215.8	13%	1%
• 소형 슈퍼마켓	128.8	133.0	139.5	147.9	144.0	143.3	11%	0%
• 기타 식품소매점	267.7	268.7	277.1	277.4	271.2	269.3	1%	-1%
○ 혼합 소매점	46.6	48.8	51.9	53.7	54.3	55.0	18%	1%
■ 비점포 판매	245.9	254.8	268.9	279.4	283.5	288.2	17%	2%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17 증감률	'16/'17 증감률
○벤딩	-	-	-	-	-	-	-	-
○홈쇼핑	245.9	254.8	268.9	279.4	283.5	288.2	17%	2%
○인터넷 소매	-	-	-	-	-	-	-	-

* 출처: Euro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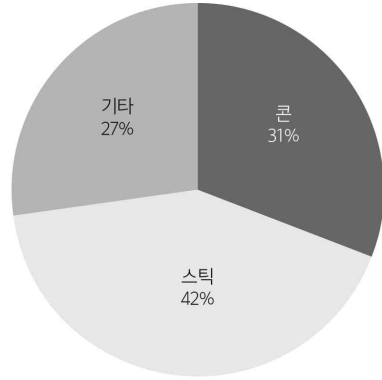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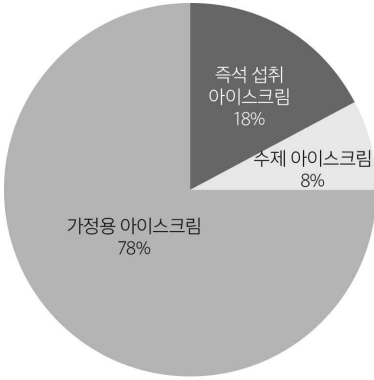
3) 소비동향

독일의 연간 1인당 아이스크림 소비량은 2017년 기준 9.5 kg로 2012년 9.1kg에서 4% 증가하였다. 이는 유럽 국가 1인당 소비량인 5.4 kg의 1.7배에 달하는 양으로 독일은 유럽에서 핀란드 다음으로 1인당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많은 곳이다.

독일인은 가정용 아이스크림 소비의 비율이 78%, 구매 즉시 먹는 아이스크림의 비율이 14%, 젤라또와 같이 비포장된 아이스크림 소비 비율이 8%이며,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빙과류의 경우 시장 점유율은 15% 수준이다.

즉석 섭취 아이스크림이 2012년 대비 4.66%, 수제 아이스크림의 경우 3.4% 감소한 반면 가정용 아이스크림은 '12년 대비 20.83%, 전년 대비 1.97% 증가함으로써 아이스크림 시장 성장의 견인 역할을 했다.

〈 아이스크림 종류 및 형태별 시장점유율(2017) 〉



아이스크림 종류에 따른 시장 점유율

아이스크림 형태에 따른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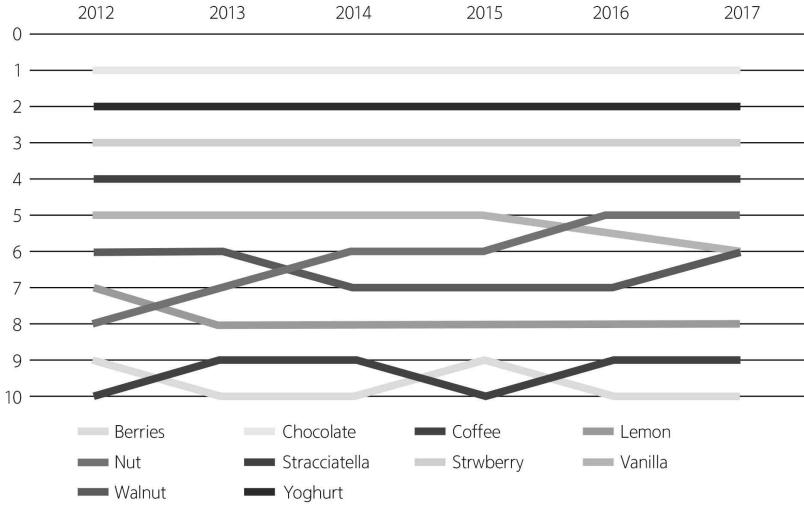
* 출처: Euromonitor

4) 선호하는 맛

독일인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스크림 맛 10가지는 바닐라, 초콜릿, 딸기, 스트라치아텔라(초코칩), 베리류, 요거트, 레몬, 넛트, 호두, 커피이다. 2012년 이후 1위부터 4위까지 바닐라, 초콜릿, 딸기, 스트라치아텔라 맛의 선호도는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독일 소비자들은 주로 클래식한 바닐라, 초콜릿, 딸기 등 클래식한 맛을 선호하고 있으며, 베리류, 요거트, 견과류 등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도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아이스크림 맛 선호도 변화 〉



* 출처: Euromonitor

5) 생산현황

독일 아이스크림 생산량은 총 5억 1,497만 리터, 생산액은 총 6억 8만 유로로 2012년 대비 생산량은 11%, 생산액은 7% 감소했다.

6) 수출입현황

2016년 기준 독일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에 4.1억 유로 수출하였으며,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로부터 2.9억 유로를 수입하였다.

〈 독일 아이스크림 수출현황 〉

(단위 : 백만 유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체	323	317	340	369	378	401
프랑스	43	52	40	45	44	57
오스트리아	39	38	43	37	43	42
네덜란드	40	34	39	36	31	36
이탈리아	30	29	29	29	29	32
영 국	27	28	32	30	26	28
스페인	21	22	23	26	20	28
벨기에	12	10	13	14	34	27
스위스	14	12	15	18	22	18
스웨덴	10	11	14	22	17	17
폴란드	7	10	12	15	19	16
기 타	80	71	81	97	93	100

* 출처 : Global Trade Atlas (HS code : 210500)

〈 독일 아이스크림 수입현황 〉

(단위 :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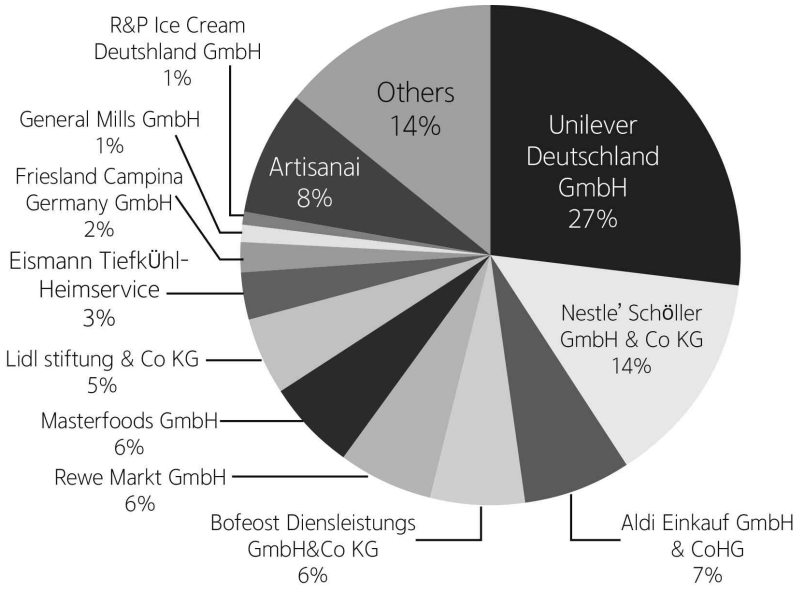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체	207	218	227	254	267	292
벨기에	34	37	42	59	77	86
이탈리아	30	32	33	44	38	46
프랑스	56	49	47	36	41	40
네덜란드	24	29	31	33	33	28
폴란드	3	10	16	20	17	21
헝가리	18	18	16	15	15	14
슬로베니아	4	4	5	8	10	12
리투아니아	5	5	6	7	8	10
영 국	8	11	7	7	6	7
스페인	10	9	10	7	6	6
기 타	15	13	15	17	15	21

* 출처 : Global Trade Atlas (HS code : 210500)

7) 주요 업체현황

독일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인 Unilever와 Nestlé Schöller 가 시장 전체의 41%를 점유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통 체인의 PB브랜드의 점유율이 높는데 Aldi(7%), Rewe(6%), Lidl(5%)이 전체 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 업체별 시장점유율(2017) 》



* 출처: Euromonitor

8) 주요 브랜드 현황

독일 아이스크림 1위 브랜드는 다국적 기업 Nestlé의 가정용 아이스크림 브랜드 Mövenpick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Mövenpick이나 Cremissimo와 같이 대용량 가정용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선전하고 있으며 Aldi, Rewe, Lidl과 같은 유통업체의 PB상품이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

브랜드	회사	2017년
Mövenpick	Nestlé Schöller GmbH & Co KG	8.9
Aldi	Aldi Einkauf GmbH & CoHG	6.9
Bofrost	Bofrost Dienstleistungs GmbH & CoHG	6.5
Rewe	Rewe Markt GmbH	6.1
Cremissimo	Unilever Deutschland GmbH	6.1
Magnum	Unilever Deutschland GmbH	5.8
Solero	Unilever Deutschland GmbH	4.9
Lidl	Lidl Stiftung & Co KG	4.8
Cornetto	Unilever Deutschland GmbH	2.9
Mars	Masterfoods GmbH	2.8
기타		44.3

* 출처: Euromonitor

9) 시장트렌드

건강을 생각하며 당과 지방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독일인의 식습관 트렌드는 아이스크림 매출의 하락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의 비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아이스크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이스크림 디저트와 멀티팩 아이스크림은 2012년 대비 각각 32%, 24%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바쁜 현대인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 다이어트 등의 이유로 소량의 아이스크림을 섭취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와 아이스크림의 프리미엄화 및 맛의 다양화를 이유로 이중 멀티팩 아이스크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이 출시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바닐라, 초콜릿, 딸기, 베리류 등 클래식한 아이스크림을 선호한다.

10) 시장전망⁵⁾

독일 아이스크림 시장은 이미 포화시장이며, 웰빙 등에 대한 관심으로 아이스크림 소비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 아이스크림 시장은 2022년까지 평균 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의 시장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즌 요거트가 전년대비 3%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프로즌 요거트가 가지는 건강한 이미지 때문이다. 이 외의 멀티팩 아이스크림이 시장 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5) Ice Cream and Frozen Desserts in Germany, Euromonitor

다. 프랑스

1) 시장동향

프랑스 아이스크림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7억 유로(한화 약 24조원)로 유럽 시장의 약 11% 점유하고 있다. 전년 대비 2.57% 2012년 대비 12.27% 증가한 수치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의 아이스크림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다.

〈 아이스크림 품목별 매출규모 〉

(단위: 백만 유로, %)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17 증감률	'16/'17 증감률
총계	1,591.5	1,622.7	1,640.5	1,751.3	1,741.9	1,786.7	12%	3%
1인용 아이스크림	306.0	313.3	320.2	350.6	353.5	365.5	19%	3%
1인용 빙과류	16.7	16.8	16.9	17.9	17.8	18.2	9%	2%
비포장 아이스크림	83.3	87.0	89.2	94.5	96.2	98.5	18%	2%
테이크홈 아이스크림	1,035.9	1,054.2	1,061.0	1,125.2	1,117.2	1,144.8	11%	2%
대용량 아이스크림	392.6	392.9	393.0	417.7	416.8	429.8	9%	3%
아이스크림 디저트	143.5	134.4	126.6	121.1	110.0	107.1	-25%	-3%
멀티팩 아이스크림	499.8	526.8	541.5	586.4	590.4	607.9	22%	3%
대용량 빙과류	109.2	110.2	111.0	117.8	114.8	116.3	7%	1%
멀티팩 빙과류	38.5	39.1	39.7	42.0	38.3	38.7	1%	1%

* 출처: Euromonitor

2) 유통현황

2017년 기준 프랑스 내 아이스크림의 88%가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편의점, 할인마트, 주유소 판매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현대식 식품판매점이 73%를 차지한다.

〈 아이스크림 유통채널별 매출규모 〉

(단위: 백만 유로, %)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17 증감률	'16/'17 증감률
총계	1,591.5	1,622.7	1,640.5	1,751.3	1,741.9	1,786.7	12%	3%
■ 점포 판매	1,411.8	1,441.0	1,457.8	1,557.4	1,542.1	1,576.2	12%	2%
○ 식품판매점 판매	1,373.5	1,400.6	1,417.4	1,515.6	1,499.7	1,533.0	12%	2%
- 현대식 식품판매점	1,188.0	1,210.0	1,218.1	1,302.1	1,279.3	1,305.7	10%	2%
• 편의점	107.1	109.6	128.0	140.7	145.0	151.4	41%	4%
• 할인마트	121.8	120.6	120.2	129.8	131.7	136.6	12%	4%
• 주유소 판매점	47.4	48.0	48.5	51.6	54.5	56.8	20%	4%
• 대형마트	505.5	516.7	507.5	546.7	522.4	530.7	5%	2%
• 슈퍼마켓	406.2	415.0	414.0	433.3	425.8	430.1	6%	1%
- 전통 식품판매점	185.5	190.7	199.2	213.6	220.4	227.3	23%	3%
• 식품/음료/담배 전문점	24.7	24.5	24.6	26.8	27.2	28.0	13%	3%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17 증감률	'16/'17 증감률
• 소형 슈퍼마켓	29.0	29.3	34.6	36.9	37.6	38.7	33%	3%
• 기타 식품소매점	131.7	136.9	140.0	150.0	155.6	160.6	22%	3%
○식품 비전문판매점	10.4	10.7	11.2	11.7	11.7	12.1	16%	3%
○혼합 소매점	27.9	29.6	29.3	30.0	30.7	31.1	11%	1%
■비점포 판매	179.7	181.7	182.7	193.9	199.8	210.6	17%	5%
벤딩	5.5	5.8	6.1	7.0	7.8	8.5	55%	9%
홈쇼핑	138.7	136.8	133.5	131.2	128.4	124.6	-10%	-3%
인터넷 소매	35.6	39.2	43.1	55.7	63.6	77.5	118%	22%

* 출처: Euro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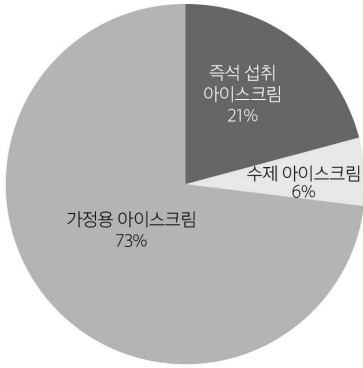
3) 소비동향

2017년 프랑스 연간 1인당 아이스크림 소비량 4.7kg로 2012년 대비 1인당 소비량은 4.8kg에서 2% 감소했다. 이는 유럽 국가 1인당 소비량인 5.4kg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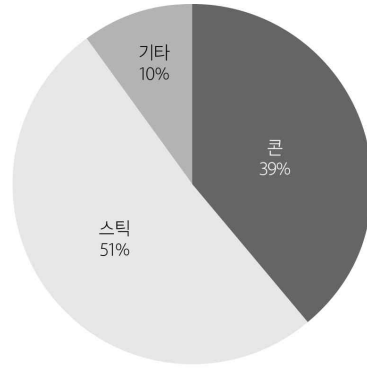
프랑스인은 가정용 아이스크림 소비의 비율이 73%, 구매 즉시 먹는 아이스크림의 비율이 21%, 젤라또와 같은 수제 아이스크림 소비 비율이 6%로 나타난다.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빙과류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에 불과해 프랑스 소비자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용 아이스크림 중 멀티팩 아이스크림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2012년 대비 22%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시장에서 34%를 차지했다.

〈 아이스크림 종류 및 형태별 시장 점유율(2017) 〉



아이스크림 종류에 따른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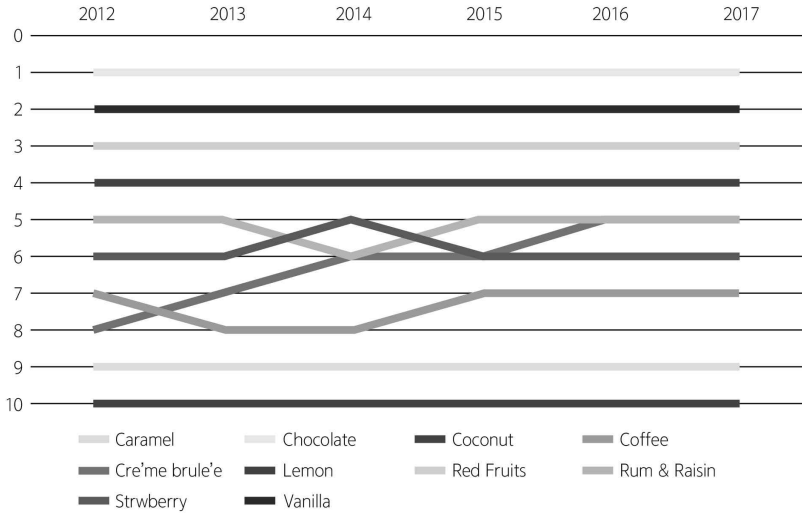
아이스크림 형태에 따른 시장 점유율

* 출처: Euromonitor

4) 선호하는 맛

프랑스인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스크림 맛 10가지는 바닐라, 초콜릿, 딸기, 빨간 과일류, 커피, 럼&건포도, 레몬, 크림 브뤼레, 카라멜, 코코넛이다. 프랑스인은 크림 베이스의 부드러운 맛의 아이스크림을 선호하며, 코코넛 이외에 이국적인 맛에 대한 선호는 높지 않다.

〈 아이스크림 맛 선호도 변화 〉



* 출처: Euromonitor

5) 생산현황

2016년 프랑스의 아이스크림 생산량은 총 4억 5,351만 리터, 생산액은 총 9억 73만 유로로 2012년 대비 생산량은 3%, 생산액은 5% 증가했다.

6) 수출입현황

프랑스의 2016년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3.9억 유로로 벨기에, 스페인, 영국과 같은 주변 유럽연합 국가를 비롯해 중국, 한국, 홍콩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도 아이스크림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북부 Pas-de-Calais 데파르트망의 Arras에 위치한 Häagen-Dazs 공장에서 생산된 아이스크림이 현재 85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것이 프랑스 아이스크림 수출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⁶⁾

프랑스의 2016년 아이스크림 수입액은 2억 유로로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 프랑스 아이스크림 수출현황 〉

(단위 : 백만 유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체	326	339	353	372	382	398
벨기에	27	32	37	43	54	60
스페인	44	38	40	47	51	52
영 국	45	41	38	41	36	40
독 일	49	46	46	38	40	37
중 국	17	21	26	25	26	24
이탈리아	18	23	16	14	14	16
한 국	7	7	9	11	12	15
홍 콩	10	11	12	14	15	13
네덜란드	13	14	14	14	13	13
대 만	7	8	8	10	11	10
기 타	88	99	107	114	111	119

* 출처 : Global Trade Atlas (HS code : 210500)

6) Le Figaro, Les glaces Häagen-Dazs désormais estampillées «made in France»
<http://www.lefigaro.fr/societes/2016/04/13/20005-20160413ARTFIG00007-les-glaces-hagen-dazs-desormais-estampillees-made-in-france.php>

〈 프랑스 아이스크림 수입현황 〉

(단위 :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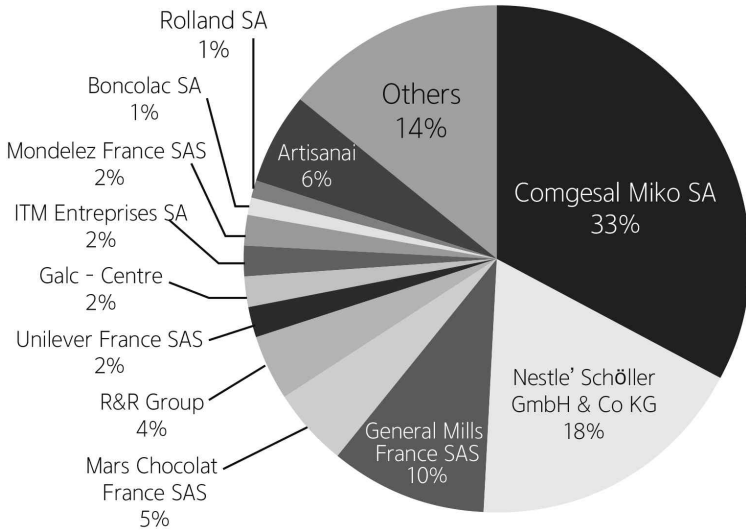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체	233	221	207	207	214	206
독 일	39	48	43	45	43	52
벨기에	60	58	53	47	55	47
이탈리아	71	59	45	48	44	34
네덜란드	11	12	13	15	19	20
스페인	17	16	22	22	20	20
영 국	11	8	10	9	11	10
헝가리	11	8	10	7	9	8
폴란드	2	2	2	4	5	5
포르투갈	2	1	1	3	2	2
그리스	1	-	-	-	1	2
기 타	9	7	7	8	6	5

* 출처 : Global Trade Atlas (HS code : 210500)

7) 주요 업체현황

프랑스 아이스크림 시장은 상위 3개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Cogesal Miko SA, Nestlé Froid SA, General Mills France SAS가 61%를 점유하는 형태이다. Cogesal Miko SA는 다국적 기업인 Unilever의 Magnum, Carte d'Or, Cornette 등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업체이다.

〈업체별 시장점유율(2017)〉



* 출처: Euromonitor

〈Cogesal Miko SA (콩제잘-미코) 기업개요〉

업 체 명	Cogesal-Miko SA	대 표 자	M Frédéric FAURE
홈페이지	http://www.miko.fr		
본 사	20 rue des 2 gares 92500 Rueil-Malmaison, France		
설 립 일	1960년	종업원수	약 100 명
매 출 액	€ 29 949 700		
전 화	+33 03 25 07 55 00	FAX	+33 1 41 96 63 21
보유브랜드	Magnum, Carte d'Or, Vienetta, Cornetto 등		

* 출처: Société

8) 주요 브랜드 현황

프랑스 아이스크림 시장은 상위 10개의 브랜드가 전체의 61.8%를 점유하는 양상을 보인다. 1위 브랜드는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의 소유이자 프랑스 현지에서는 아이스크림 및 셔벗 제조업체인 Cogesal Miko SA가 생산하는 브랜드인 초콜릿바 브랜드인 Magnum이다. 용기 형태의 아이스크림 브랜드로는 Häagen-Dazs가 1위이며 Carte d'Or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

브랜드	회사	2017년
Magnum	Congesal Miko SA	16.5%
Häagen-Dazs	General Mills France SAS	10.3%
Carte d'Or	Congesal Miko SA	9.2%
Extrême	Nestlé Grand Froid SA	8%
La Laitière	Nestlé Grand Froid SA	5.5%
Picard	Picard Surgelés SA	3.9%
Mars	Mars Chocolat France SAS	2.5%
Ben & Jerry's	Unilever France SA	2.1%
Viennetta	Congesal Miko SA	2.1%
Carrefour	Carrerout SA	1.7%
기타		38.2%

* 출처: Euromonitor

〈 프랑스 아이스크림 브랜드 〉

회사	제품 이미지	브랜드	종류	형태	특징
Nestlé Grand Froid SA		La Laitière	용기	아이스크림	동일한 이름의 냉장 디저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크림 베이스 가정용 아이스크림 브랜드

9) 시장트렌드⁷⁾

아이스크림이 여름 계절식품이 아닌 연중 소비하는 식품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기는 하나, 계절의 영향이 아이스크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대단하다. 2016년 7월 프랑스의 여름기온이 낮아 아이스크림 업계가 타격을 받기도 했다.

프로즌 요거트는 전년대비 19%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7년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제품으로 아직까지는 프로즌 요거트 전문점(Yogurt Factory, Ilaollao, Tutto frutti Frowen Yogurt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가정용 멀티팩 아이스크림은 미니바 혹은 미니콘 제품이 매출신장의 주요 요인이 되어 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이 출시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바닐라, 초콜릿, 딸기, 베리류 등 클래식한 아이스크림을 선호한다.

10) 시장전망

프랑스 아이스크림 시장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여타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와 같이 연중 아이스크림 소비가 높은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시장의 성숙도가 낮다.

프랑스 아이스크림 시장은 올해 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프로즌 요거트, 미니

7) Ice Cream and Frozen Desserts in France, Euromonitor

아이스크림, 멀티팩 및 1인용 아이스크림의 수요가 꾸준히 있는 만큼 시장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당불내증 소비자들도 소비할 수 있는 두유 등을 원료로 생산한 대체 유제품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 아이스크림 시장현황

>>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파리지사

발 행 일 : 2017년 11월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자 료 문 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홈페이지(www.kak.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및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